

『1938 타이완 여행기』의 다국어 번역본 결텍스트 비교 연구: 제목·앞표지를 중심으로*

홍은영(가톨릭꽃동네대학교)

1. 서론

번역은 단순한 언어 전환이 아니라 독자를 위해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가 본문을 읽기 전에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제목과 앞표지와 같은 결텍스트(paratext)이다. 번역본의 결텍스트에는 번역자와 출판사의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며, 이를 통해 독자는 원작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작품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 특히 제목은 제한된 언어 안에 해석과 출판 전략이 압축된 결텍스트이다. 앞표지 역시 이미지, 색채, 인물 배치 등 시각적 요소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작품에 대한 첫인상과 기대를 갖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만 작가 양쌍쯔(楊雙子)의 소설 『1938 타이완 여행기』(원제 『臺灣漫遊錄』, ‘타이완 여행기’)¹⁾의 대만 화어(臺灣華語) 원작과 한국

* 본 연구에서 인용한 중국어 자료 내용 확인에는 AI 번역을 참고하였으며, 인용 및 해석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1) 왕순웨이(王舜薇, 2026)에 따르면, 한국어판 출판사는 원제의 ‘漫遊錄’이 한국 독자에게 고전적 유람기로 인식되어 일반 독자와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여행기’로 바꾸었다. 또한 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제목에 ‘1938’을 추가하였다.

어·영어·일본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제목과 앞표지를 비교·분석한다²⁾. 이 작품은 실제 작가 양창쓰가 1938년 대만을 여행한 일본인 여성 아오야마 치즈코의 여행기를 자신이 번역한 것처럼 구성된 위장 번역 구조를 취한다. 작품 내부에서는 아오야마가 저자, 양창쓰가 번역자로 설정되므로, 대만 화어 원작은 실제 판본 관계에서는 원작이지만 작품의 허구적 설정 안에서는 번역서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는 작품의 저자성과 결텍스트를 분석하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판본 관계를 기준으로 『臺灣漫遊錄』을 ‘원제’로 지칭하되, 위장 번역 설정과 관련된 때에는 이 이중적 지위를 구분하여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각 판본이 작품의 여러 서사적 층위 가운데 무엇을 전경화하며, 제목과 시각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어떠한 작품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지 살펴본다. 『1938 타이완 여행기』는 여행과 음식뿐만 아니라 식민지 역사와 여성 인물 간의 관계 등 복수의 서사적 층위를 지닌 작품이다. 이와 같은 복합성으로 인해 번역본마다 제목과 앞표지가 전경화하는 작품의 측면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만 화어 원작과 한국어·영어·일본어 번역본의 제목과 앞표지를 비교하여, 각 언어권의 번역본이 작품의 어떠한 측면을 부각하고 어떻게 작품 이미지를 구성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각 판본의 제목과 앞표지는 작품의 어떠한 서사적 층위를 전경화하는가. 그러한 선택은 각 언어권이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맺는 관계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리고 원작의 저자성의 허구는 결텍스트를 통해 어떻게 구성되며,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를 통해 번역 결텍스트가 번역 전략과 출판 전략 속에서 작품의 수용 방향을 형성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전경화’는 특정 요소가 단순히 제목이나 앞표지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전과 비교하여 제목의 어휘가 추가·삭제·재구성되거나 주제와 부제의 위계가 달라지고, 앞표지에서 인물의 크기와 배치, 공간적 근접과 분리, 주요 사물, 문자 정보의 위계 등의 시각적 선택을 통해

2) 본 연구는 국내 독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한국어판 제목을 작품 명칭으로 사용하되, 이 명칭 자체가 분석 대상인 전경화의 결과임을 밝혀 둔다. 영문 제목과 초록에서는 영어판 제목인 『Taiwan Travelogue』를 사용한다.

특정 서사 요소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제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판본이 작품의 어떠한 측면을 부각하는지는 원전과의 차이와 해당 판본 내부에서 나타나는 언어적·시각적 현저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각 언어권의 역사적·출판적 맥락이 제목이나 앞표지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결정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번역자나 출판사의 선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되,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결텍스트의 언어적·시각적 구성과 작품의 서사 및 역사적 배경을 함께 검토하여 해석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언어권의 역사적 맥락과 결텍스트의 선택을 연결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선택이 어떠한 독해 가능성을 형성하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분석은 다수의 판본을 포괄하는 양적 비교보다, 선정된 네 언어권의 제목과 앞표지를 결텍스트라는 공통 틀 안에서 면밀히 비교하는 질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 분석 대상 언어권은 작품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일본은 작품이 그리는 식민 지배의 주체였던 국가이고, 한국은 같은 시기 동일한 지배를 경험한 제3의 위치에 있으며, 영어권은 이 역사의 바깥에서 작품을 수용하는 국제 문학 시장을 대표한다. 이처럼 원작이 다루는 역사와 맺는 관계가 상이한 세 언어권을 대만 화어 원작과 함께 비교함으로써, 결텍스트의 차이가 작품의 역사적 충위를 각기 다르게 환기하는 양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번역과 결텍스트

주네트(Genette, 1987/1997, pp. 1-2)는 결텍스트를 텍스트가 책으로서 독자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자, 독자가 텍스트 안으로 들어설지 돌아설지를 결정하는 “문턱(threshold)”으로 정의한다. 그는 결텍스트를 텍스

트의 내부와 외부로 연결하는 “미정 지대(undefined zone)”로 보며, 이 공간에서 독자는 텍스트와 처음 조우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주네트(1987/1997, p. 12)는 곁텍스트를 주변텍스트(peritext)와 외부텍스트(epitext)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제목과 표지는 본문과 동일한 물리적 매체 안에 배치되는 주변텍스트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목과 앞표지는 독자가 작품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곁텍스트로서, 작품에 대한 첫인상과 해석 방향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주네트(1987/1997, pp. 24-25)는 표지가 제목이나 저자명과 같은 언어적 정보뿐 아니라 색채, 디자인, 삽화, 출판사의 시리즈 디자인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통해 작품의 성격과 의미를 전달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노란 표지가 외설적인 프랑스 서적을 상징했던 사례와 『Doctor Faustus(파우스트 박사)』 프랑스어판이 희미한 악보를 활용해 작품의 핵심 모티프를 암시한 사례를 제시하며, 표지가 독자의 기대와 작품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곁텍스트임을 설명한다. 나아가 주네트(1987/1997, p. 11)는 곁텍스트가 독자와 계약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며, 이는 곁텍스트가 독자의 독서 방향을 사전에 설정하는 장치임을 함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약적 기능을 분석의 편의를 위해 ‘독서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지칭한다. 여기서 ‘독서 계약’은 제목과 앞표지가 본문 독서에 앞서 특정 장르, 주제 또는 인물 관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독자의 해석 방향을 선행적으로 제안하는 곁텍스트적 기능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 독자의 수용 양상을 실증한 개념이 아니라, 곁텍스트가 제안하는 독서 방향을 기술하기 위한 분석 용어이다.

다만 주네트의 이론은 주로 단일 언어의 출판 맥락을 전제로 하므로, 번역본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제목과 표지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번역학적 확장이 필요하다(지영래와 박선희, 2010, p. 251). 이에 본 연구는 베첼러(Batchelor, 2018)의 번역 곁텍스트 논의를 주요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그는 번역본의 곁텍스트를 원문의 단순한 부속 요소가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의미 생성 장치로 이해한다. 또한 베첼러(2018, p. 142)는 번역본의 제목, 표지, 서문, 역자 후기 등은 번역자의 선택뿐 아니라 출판사의 기획, 목표 독자층, 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결과이며, 독자의 작품 이해와 수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번역본마다 서로 다른 앞

표지와 제목의 조합은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도 상이한 해석의 방향과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

최의식(2011, p. 229) 역시 번역본의 결텍스트를 주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통로’로 보며, 외국 작품이 목표 독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관여한다고 설명한다. 이 논의를 종합하면, 제목은 작품의 성격과 번역·출판 전략을 언어적으로 압축하고, 앞표지는 제목과 결합하여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는 방향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제목과 앞표지를 함께 분석하는 것은 번역본이 작품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 가운데 번역 제목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리스테루치-루드니키(Risterucci-Roudnicky, 2008)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리스테루치-루드니키(2008, p. 39)는 번역 과정에서 작품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긴장이 제목이라는 짧은 형식 안에 집약된다고 보며, 이 때문에 제목을 분석하면 외국 문학의 중개자들이 채택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번역 제목 분석을 위한 제목 분석표(Tableau d'analyse d'un titre)를 제시하며, 제목의 구조와 의미뿐 아니라 문화적 맥락, 수용 환경, 결텍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Risterucci-Roudnicky, 2008, p. 40).

본 연구는 리스테루치-루드니키의 분석 틀 가운데 『1938 타이완 여행기』의 다국어 제목 비교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였다. 예비 사항에서는 번역 제목을 결정한 주체를, 번역 과정의 차원에서는 원제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제목이 변형되었는지, 주변텍스트 및 텍스트로서의 제목 차원에서는 제목의 위계와 의미를, 메타텍스트 및 문학적 차원에서는 제목과 작품의 관계를, 문화적·상호문화적 차원에서는 각 언어판 제목의 상호 비교와 예상 독자의 수용을 각각 가져왔다. 반면 재번역 제목의 비교나 번역 제목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선별한 분석 항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베첼러(2018)의 번역 결텍스트 개념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베첼러의 논의를 원작과 번역본의 결텍스트를 대등한 분석 대상으로 놓고 그 차이를 해석하기 위한 전제로 삼는다. 더불어 리스테루치-루드니키(2008)의 제목 분석 틀을 적용하여 제목을 분석한 뒤, 이를 앞표지 분석과

연계하여 번역본의 겹텍스트를 비교·분석한다.

표 1

리스테루치-루드니키(2008)의 제목 분석표³⁾

리스테루치-루드니키의 분석 영역	검토 항목
예비 사항 (Preliminaires)	- 원제는 무엇이고 번역자는 누구인가 - 번역 제목은 어떤 언어에서 번역 또는 음역되었는가, 원어 형태로 유지된 경우 그 언어는 원작 저자의 언어인가 다른 외국어인가 - 번역 제목을 만든 주체는 번역자인가, 편집자인가
번역 과정의 차원 (Plan du transfert)	- 앞서 수립한 유형론에 따라 제목을 분류: 축자적(littéral)·수정된(modifié)·변형된(transformé)
주변텍스트 및 텍스트로서의 제목 차원 (Plan du péri-texte et du titre comme texte)	- 제목의 위계를 밝힘(상위 제목/제목/이중 제목/부제) - 제목의 유형을 규정: 주제적(thématique) 또는 평언적(rhématique) - 주제적 제목의 성격(축자적·은유적·환유적·반어적·중의적·상징적) - 제목의 형태(문장·명사구·고유명사·명사 등)를 파악하고 의미적·통사적으로 분석하되 가능한 경우 원어의 의미를 고려
메타텍스트 및 문학적 차원 (Plan métatextuel et littéraire)	- 제목과 본문의 관계를 확립하고 제목이 제기하는 문제를 밝힘
문화적·상호문화적 차원: 수용 맥락에서 제목의 기능 (Plan culturel et interculturel)	- 제목의 기능과 그 쟁점을 밝힘(출판사, 총서, 번역 텍스트 독자의 기대 지평에 관한 지표 고려) - 재번역이 있는 경우 번역 제목들을 비교하고 변화를 분석 - 다른 외국어 번역 제목과 비교 / 겹텍스트와 외부텍스트를 고려(서문·후기·번역에 관한 부속 자료, 번역자의 증언) / 번역 제목을 평가(가능한 경우)

3) 리스테루치-루드니키(Risterucci-Roudnicky, 2008, p. 40)의 Tableau d'analyse d'un titre(제목 분석표)를 연구자가 한국어로 옮김.

또한 제목과 이미지의 관계는 바르트(Barthes, 1964/1977, pp. 38-41)의 앵커리지(anchorage)와 릴레이(relay) 개념을 참고한다. 언어적 메시지는 이미지의 복수 의미 가운데 특정 해석을 선택하도록 하며, 언어와 이미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제목의 언어적 전경화와 앞표지의 시각적 전경화가 결합해 독서 방향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다음 절에서는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국내 번역 결텍스트 연구

국내 번역학에서 제목과 표지를 포함한 결텍스트 관련 연구는 크게 표지 연구, 제목 연구, 결텍스트 전반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표지 연구는 이미지와 색채, 인물 재현, 문화적 상징 등을 통해 번역본 앞표지가 원작의 특정 측면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양상을 분석해 왔다. 최희경(2011)은 원서와 번역서의 표지에 나타난 시각 기호의 변이를 사회기호학적으로 분석하여, 언어 기호뿐 아니라 시각 기호 역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 구성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후속 연구에서는 표면적 기호의 비교를 넘어 표지의 시각적 요소를 작품의 내용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승혜와 김순영(2022)은 이러한 관점에서 『82년생 김지영』의 20개국 번역서 앞표지를 작품의 핵심 주제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표지가 본문의 어떤 요소를 선택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언어권 비교의 측면에서는 이강선(2019)이 『엄마를 부탁해』 27개 번역본 표지를 이미지와 문자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동일 작품의 번역본에서도 원작 표지와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가 없었으며, 각 언어권의 표지가 목표문화의 가치관과 독자 수용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이미지를 선택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동일 작품의 번역 결텍스트가 목표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다국어 판본 비교와 관련된다.

제목 연구에서는 최미경(2016)이 한국문학의 프랑스어 번역 제목을 원제

와의 관계 및 제목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제의 의미를 직접 대응하는 번역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도착어에서 원제의 형태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첨삭·변형 또는 제목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는 번역자와 출판사의 판단이 개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번역 제목을 단순한 어휘적 대응이 아니라 작품의 의미와 독자 수용을 고려한 선택의 결과로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결텍스트 전반에 관한 연구는 번역본에서 결텍스트의 기능과 재구성 양상, 번역본 수용 과정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영래와 박선희(2010), 이지영(2016), 김민서와 김순영(2019), 이지민과 한륜혜(2022)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번역 제목과 앞표지가 작품의 의미 구성과 목표 독자의 기대 형성에 관여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강선(2019)과 마승혜와 김순영(2022)에서 볼 수 있듯, 번역서 표지의 변이 양상을 다언어권에 걸쳐 비교한 연구도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제목의 언어적 선택과 앞표지의 시각적 구성이 상호작용하여 동일 작품의 특정 서사적 층위를 어떻게 전경화하는지를 통합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38 타이완 여행기』의 대만 화어 원작과 한국어·영어·일본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제목과 앞표지를 하나의 번역 결텍스트 구성으로 함께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은 번역 결텍스트를 각각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어와 이미지가 함께 작동하는 하나의 구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작품 소개

소설 『1938 타이완 여행기』는 대만 작가 양창쓰가 집필한 장편소설로, 대만 화어 원작은 2020년 4월 춘산출판(春山出版)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해당 작품은 1938년 일본 식민 지배하의 대만을 배경으로, 일본인 소설가 아오야마 치즈코(青山千鶴子)와 대만인 통역사 왕첸허(王千鶴)가 대만 종단 철도를 따라 여행하며 각지의 음식을 경험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표

면적으로는 여행기의 외형을 취하고 있으나, 작품은 단일한 장르나 주제로 환원되지 않는 복수의 서사적 층위를 지닌다.

첫 번째 층위는 여행기·음식 서사이다. 차(茶), 카레, 잔반탕 등 대만 각지 음식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단순한 미식 기행의 외형을 띠지만, 동시에 식민지 대만의 문화적 혼종성과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는 매개로 기능한다. 작가 양왕즈는 1930년대 대만의 음식 문화에 대한 치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이 층위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작품이 표방하는 여행기적 성격의 핵심을 이룬다.

두 번째 층위는 식민지 역사·권력 관계이다. 1938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일본 제국주의가 대만을 식민 지배하던 시기로, 일본인 아오야마와 대만인 왕첸허의 관계 역시 이러한 식민지적 조건 속에서 전개된다. 왕(Wang, 2025, p. 7)은 두 인물의 관계에서 식민지적 정체성과 인종·계급의 차이가 친밀성과 연대에 개입하며, 두 여성의 관계가 권력의 협상 과정으로 제시된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작품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개인적 친밀성만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식민 지배국 출신 인물과 피식민지 인물이라는 상이한 사회적 위치를 함께 드러낸다.

세 번째 층위는 백합 서사이다.⁴⁾ 작가 양왕즈는 여러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백합 소설로 명시한 바 있으며, 실제로 텍스트 곳곳에서 인물 간의 감정적 친밀감이 섬세하게 서술된다. 아오야마가 왕첸허를 바라보는 시선, 터널 장면에서의 내적 서술, 작별 장면에서의 감정 고백 등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감정으로 읽힌다. 다만 작품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절제된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두 여성의 관계를 독자의 해석에 열어 두는 방식을 취한다.

이처럼 『1938 타이완 여행기』는 여행기·음식 서사, 식민지 역사·권력 관계, 백합 서사라는 세 층위가 공존하는 작품이다. 이로 인해 각 언어권의 번역본이 제목과 앞표지를 통해 이 가운데 어떤 층위를 전면화하는지에 따라 독자가 형성하는 작품 이미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작품은 2021년 타이완 금정상, 2024년 미국 전미도서상 번역 부문, 2024년 제10회 일본번역

4) ‘백합’은 여성 인물들 간의 애정을 중심으로 서사를 풀어가는 장르를 가리키는 일본식 표현이다(가시와라 토키코, 2025).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6년에는 부커 국제 부문(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수상하였다(한이재, 2026). 이는 중국어 원작 소설 최초이자, 대만 작가 최초의 수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국제적 수상 이력은 해당 작품이 번역을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여러 언어권에서 번역·출판되었음을 보여주며, 번역 과정에서 제목과 앞표지가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연구 대상임을 뒷받침한다.

한편 이 작품은 출간 당시 창작 소설이 아니라 번역서 형식으로 제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원작은 아오야마 치즈코라는 인물이 일본어로 쓴 소설을 양창쓰가 대만 화어로 옮기고 각주를 붙였다는 설정을 취하며⁵⁾, 앞표지에도 아오야마 치즈코와 양창쓰가 나란히 저자로 표기되어 있다.⁶⁾ 그러나 아오야마 치즈코는 작중 인물이자 가공의 존재이며, 양창쓰는 실재하는 작가이지만 작품 안에서는 번역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본문의 편제 역시 같은 설정을 따른다. 가공의 추천사와 1954년 초판 서문에 이어, 1970년 재출간판 후기와 1990년 대만판의 역자 후기·편자 후기, 그리고 신판 역자 후기가 차례로 배치되어 있어, 작품이 여러 판본을 거쳐 온 번역서라는 이력 자체를 결텍스트로 구성한다. 주네트는 페소아나 키르케고르처럼 실제 작가가 여러 저자 이름을 만들어 낸 사례를 다룬다. 그는 그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저자가 서문이나 저자 약력과 같은 결텍스트적 수단으로, 나아가 주제와 문체의 독자성으로 허구적 정체성을 부여받는다고 지적한다(1987/1997, pp. 52-53). 이 작품 역시 결텍스트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저자와 허구의 번역관계를 구축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대만 화어 원작과 한국어·영어·일본어 번역본의 제목 및 앞표지이다. 원작은 2020년 춘산출판에서 출간된 초판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어판은 김이삭 번역으로 2025년 마티스블루에서 출간된 판본을 (양창쓰, 2020/2025), 영어판은 린 킹(Lin King) 번역으로 2024년 Graywolf

5) 이러한 설정은 한국어판 일러두기에 명시되어 있다(양창쓰, 2020/2025, 일러두기 1항).

6) 원작 초판(2020년 4월) 앞표지에는 「青山千鶴子·楊雙子 著」로 표기되어 있다(楊雙子, 2020). 이 이중 저자 표기가 실제 저자에 대한 독자의 오인을 낳아 이후 책에서 표지와 띠지가 수정되었다는 점이 보도된 바 있다(中央通訊社, 2026). 다만, 본 연구는 수정 이전 표지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Press에서 출간된 판본을(Yang, 2020/2024), 일본어판은 미우라 유코(三浦裕子) 번역으로 2023년 중앙공론신사(中央公論新社)에서 출간된 판본을 대상으로 한다(楊雙子, 2020/2023).

앞표지는 각 판본의 초판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대만 화어판과 영어판은 현재 유통되는 판본의 앞표지가 초판과 다르다. 대만 화어판은 이후 쇠에서 저자 표기가 양창쑤 단독으로 수정되었고(각주 6 참조), 영어판은 초판 실물과 초판 전자책의 앞표지가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나, 수상 이후 유통되는 판본에는 수상 표시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두 판본은 초판 앞표지가 수록된 전자책 파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은 종이책 판본을 대상으로 하되 떠지를 제거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자책 이미지는 유통·배포 과정에서 갱신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확인 시점(2026년 8월)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938 타이완 여행기』의 주요 서사적 층위를 여행기·음식 서사, 식민지 역사·권력 관계, 여성 인물 간 관계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각 판본의 제목과 앞표지가 무엇을 전경화하는지 판단하는 분석 범주로 활용한다. 이후 각 언어판의 제목과 앞표지가 이들 층위 가운데 어떠한 요소를 선택적으로 전경화하는지 살펴보고, 제목의 언어적 선택과 앞표지의 시각적 구성이 결합하여 어떠한 작품 이미지와 독서 방향을 제안하는지 비교·분석한다.

4. 『1938 타이완 여행기』 다국어 번역본 결텍스트 분석

4.1 다국어 번역본 제목 분석

리스트루치-루드니키(2008, p. 40)가 제안한 제목 분석표(Tableau d'analyse d'un titre)는 번역 제목을 원제와의 관계, 제목 자체의 형식과 의미, 제목과 본문의 관계, 그리고 목표문화의 수용 맥락이라는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분석표는 예비 사항과 네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지며, 예비 사항에서는 원제와 번역자, 번역의 출발 언어, 그리고 번

역 제목을 결정한 주체가 번역자인지 편집자인지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번역 과정의 차원(plan du transfert)에서는 원제로부터의 편차 유형에 따라 번역 제목을 분류한다. 이어 주변텍스트 및 텍스트로서의 제목 자체의 차원(plan du péritexte et du titre comme texte)에서는 제목의 유형과 형태, 위계, 의미적·통사적 특성을 분석한다. 메타텍스트적·문학적 차원(plan métatextuel et littéraire)에서는 제목과 본문의 관계를 검토하며, 문화적·상호문화적 차원(plan culturel et interculturel)에서는 출판 환경과 예상 독자의 기대, 다른 언어의 번역 제목, 결텍스트 등을 고려하여 목표문화의 수용 맥락에서 제목이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리스테루치-루드니키(2008)의 분석표 전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연구문제와 직접 관련되고 각 판본 간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제목 결정 과정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관련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예비 사항으로 제목 결정 주체를 먼저 확인한 뒤, 원제와 각 번역 제목을 비교하여 원제 의미 요소가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형되고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목을 구성하는 어휘의 의미와 그것이 작품의 서사적 층위 가운데 어떠한 요소를 전경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본문의 내용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각 언어판의 제목을 상호 비교하고, 제목의 차이가 각 언어권의 문화적·역사적 맥락 및 예상 독자의 작품 수용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구체적인 분석 항목은 아래 <표 2>에 정리하였다.

먼저 예비 사항에 해당하는 ‘제목 결정의 주체’를 살펴보면, 왕순웨이(2026)의 인터뷰를 통해 세 번역본의 제목 결정 과정에 번역자와 편집자·출판 측이 참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판은 번역자 미우라 유코와 담당 편집자가 일본의 독자층과 출판 환경을 고려하여 ‘철도’와 ‘두 사람’을 제목에 반영하였고, 영어판은 출판사가 제안한 ‘Aoyama Chizuko’s Taiwan Travelogue’ 대신 번역자 린 킹이 ‘Taiwan Travelogue’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어판은 번역자와 출판사의 협의 과정에서 ‘漫遊錄’을 ‘여행기’로 바꾸고 ‘1938’을 추가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번역 과정의 차원에서 ‘원제와 번역 제목의 관계’를 살펴보면, 리스테루치-루드니키(2008, p. 40)는 번역 제목을 원제로부터의 편차에 따라 축자적·수정된·변형된 유형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세 번역본은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한다. 영어판은 세 번역본 가운데 원제의 의미 요소를 가장 적게 변형한 축자적 유형이다. 한국어판은 원제의 의미를 유지한 채 ‘1938’이라는 시간 정보를 더한 수정된 유형에 해당한다. 반면 일본어판은 주 제목에서 원제의 ‘漫遊’을 유지하되 ‘録’을 삭제하고 ‘鐵道のふたり’를 더하여 제목 구조를 재편한 뒤, 부제에서 여행기라는 의미를 다시 제시한다. 즉 일본어판의 차이는 단순한 첨가가 아니라 일부 유지·삭제·추가와 부제로의 재배치가 결합된 결과이다.

표 2

리스트루치-루드니키(2008)의 제목 분석 틀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분석 항목⁷⁾

리스트루치-루드니키의 분석 영역	본 연구의 분석 항목	분석 내용
예비 사항 (Préliminaires)	제목 결정의 주체	번역 제목을 결정한 주체가 번역자인지 편집자인지
번역 과정의 차원 (Plan du transfert)	원제와 번역 제목의 관계	원제의 의미 요소가 유지·변형되거나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는 양상
주변텍스트 및 텍스트로서의 제목 차원 (Plan du péri-texte et du titre comme texte)	제목의 의미	제목을 구성하는 어휘의 의미와 전경화되는 요소
메타텍스트 및 문학적 차원 (Plan métatextuel et littéraire)	제목과 작품의 관계	제목에서 부각된 요소와 작품의 서사적 층위 사이의 관계
문화적·상호문화적 차원: 수용 맥락에서 제목의 기능 (Plan culturel et interculturel)	문화적 맥락과 독자 수용	각 언어판 제목의 상호 비교 및 문화적·역사적 맥락과 예상 독자의 수용 방향

이어 주변텍스트 및 텍스트로서의 제목 차원에서 ‘제목의 의미’를 살펴

7) 리스테루치-루드니키(Risterucci-Roudnicky, 2008, p. 40)의 ‘Tableau d’analyse d’un titre’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보면, 세 번역본은 원제와 맺는 관계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작품 요소를 전경화한다. 원제인 『臺灣漫遊錄』은 ‘漫遊錄(유람기)’을 통해 여행과 기록이라는 장르적 성격을 드러낸다. 다만 3장에서 살펴본 위장 번역 설정을 고려하면, 이 제목은 단순히 장르를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원제는 작중 인물인 아오야마 치즈코가 1954년에 발표하였다고 설정된 일본어 저작의 제목이자, 양창쓰가 이를 옮긴 번역서의 제목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다만 이 이중적 지위가 제목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앞표지의 저자 병기와 본문의 편제와 결합할 때 비로소 번역서라는 틀로 읽힌다.

영어판 『Taiwan Travelogue(타이완 여행기)』는 ‘Travelogue(여행기)’를 사용하여 원제의 의미 요소를 가장 적게 변형한 제목이다. 다만 이를 원작의 장르적 성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영어판은 앞표지에 ‘A Novel’이라는 장르 표지를 병기하여 작품이 소설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앞표지의 저자 표기 또한 원작과 달리 양창쓰 단독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즉 영어판의 충실성은 제목의 어휘 층위에 한정되며, 장르 표지와 저자 표기의 층위에서는 원작의 구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일본어판 『台湾漫遊鉄道のふたり(타이완 유람철도의 두 사람)』는 주 제목에서 원제의 ‘漫遊(유람)’을 유지하되 ‘録(기록)’을 삭제하고 ‘鉄道(철도)’의 ふたり(두 사람)를 더하여 제목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작품의 공간적 이동과 두 인물의 관계를 전면화한다. 한국어판 『1938 타이완 여행기』는 원제의 의미를 유지한 채 ‘1938’이라는 연도를 더함으로써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성을 강조한다.

메타텍스트 및 문학적 차원에서 ‘제목과 작품의 관계’를 살펴보면, 각 제목에서 부각된 요소는 작품의 서로 다른 서사적 층위와 연결된다. 원작은 여행과 음식, 역사적 기록, 그리고 두 여성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서사 구조를 갖고 있으나, 일본어판은 제목에서부터 두 인물의 관계와 철도라는 소재를 전면화한다. 영어판의 ‘Travelogue’는 작품 전반을 구성하는 여행과 음식 경험의 서사와 연결되며, 한국어판의 ‘1938’은 작품이 전개되는 식민지 대만의 역사적 시공간을 직접 지시한다. 철도는 작품에서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서사의 골격을 이루는 요소이다. 아오야마 치즈코와 왕첸허의 만남과 동행은 대만 중단철도를 따라가는 여정 위에서 이루어지며, 두 사람

이 함께 머무는 시간의 대부분이 열차 안이거나 정차한 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철도’와 ‘두 사람’이 나란히 놓인 제목은 두 요소가 작품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상호문화적 차원에서는 ‘문화적 맥락과 독자 수용’을 중심으로, 각 언어판의 제목 선택이 출판 환경과 예상 독자의 수용 방향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본다. 왕순웨이(2026)에 따르면 세 언어판의 제목 결정에는 각각 목표 독자와 출판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 일본어판은 철도에 관심 있는 독자와 여성 인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독자를 고려하여 ‘철도’와 ‘두 사람’을 제목에 포함하였고, 영어판은 작품이 ‘일본’의 틀로 읽히기보다 ‘Taiwan’을 중심으로 인식되도록 Taiwan Travelogue를 유지하였다. 한국어판은 ‘漫遊錄’이 고전적 유람기로 인식될 가능성을 고려해 ‘여행기’로 바꾸고, 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직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1938’을 추가하였다. 이 연도는 일본 식민 지배하의 대만이라는 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직접 지시하며, 일본인 아오야마와 대만인 왕첸허의 관계 역시 이러한 식민지적 조건 속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한국어판의 제목은 단순히 서사의 시점을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가 작품의 식민지 역사적 층위를 이룬 단계부터 인식하도록 하는 단서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각 언어권의 문화적·역사적 맥락과도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원제는 여행과 기록이라는 장르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작품의 다양한 요소를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반면, 일본어판은 두 여성의 관계를, 한국어판은 식민지 시대라는 역사성을 각각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영어판은 이러한 요소를 특별히 전면화하지 않고 원제의 의미 요소를 가장 적게 변형한다.

다만 원제의 ‘漫遊’에는 목적지를 향해 이동한다는 뜻을 넘어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유람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영어판의 ‘Travelogue’와 한국어판의 ‘여행기’는 여행의 기록이라는 장르적 성격은 전달하지만 이 여유로운 이동의 함의까지 옮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일본어판은 주 제목에 ‘漫遊’를 그대로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원제의 의미 요소가 가장 적게 변형된 판본과 ‘漫遊’가 유지된 판본이 서로 다르다.

이 차이는 원제가 지닌 이중적 지위와 관련지어 볼 때 한층 분명해진다.

세 번역본은 모두 앞표지에서 양왕쯔를 단독 저자로 표기함으로써 원작이 구성된 저자성의 허구에서 벗어나며, 그 위에서 제목을 통해 각기 다른 층위를 전경화한다. 특히 일본어판은 작품 내부에서 허구적으로 전제된 일본어 ‘원문’의 언어가 실제 번역의 목표 언어가 된다는 점에서 영어판·한국어판과 다른 번역 관계를 형성한다.

사실 일본어판은 존재하지 않는 일본어 원문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대만 화어 원작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므로, 이를 진정한 의미의 역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허구적 원문의 언어와 실제 목표 언어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본어판은 메타텍스트적 특수성을 갖는다. 동시에 앞표지는 양왕쯔를 실제 작가로, 번역자를 별도로 제시하므로 위장 번역 설정 자체를 복원하지는 않는다. 관련 인터뷰와 보도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면, 위장 번역 설정이 번역 과정에서 인식되고 일정한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된다. 양왕쯔는 김이삭과의 대답에서 자신을 번역자로 설정함으로써 주석을 통해 역사적 맥락에 개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번역서의 틀이 작품의 문학적 장치라고 설명한다(박은영, 2026). 린 킹 또한 영어판에서 원작의 허구적 번역자 주석에 자신의 주석을 덧붙임으로써 자신 역시 작품의 인물처럼 기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Conway, n.d.). 그러나 이러한 자료에서도 세 번역본이 아오야마 치즈코의 저자 표기를 앞표지에서 유지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대만 화어 원작은 초판의 이중 저자 표기가 실제 독자 오인을 낳아 이후 왜에서 수정된 사례가 있으나, 이를 세 번역본의 저자 표기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독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적 결정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결텍스트에서 원작의 저자성 허구가 앞표지에서는 유지되지 않았다는 결과 자체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번역 결텍스트의 재구성은 원작의 의미요소를 선택적으로 유지하거나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작이 구성한 저자성과 번역 관계의 허구를 목표문화의 출판 맥락 속에서 다시 배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세 판본의 제목은 각각 다른 독서 계약을 선행적으로 제시하며, 다음 절에서는 이를 앞표지와 함께 검토한다.

이상의 제목 분석을 종합하면, 세 번역본의 제목은 작품의 서로 다른 서사적 층위를 전경화한다. 영어판은 여행기·음식 서사를, 일본어판은 여성 인

물 간 관계를, 한국어판은 식민지 역사·권력 관계를 상대적으로 부각한다. 구체적인 비교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리스테루치-루드니키(2008)의 제목 분석 틀을 적용한 『1938 타이완 여행기』 번역본 제목 비교⁸⁾

판본	제목	원제와의 관계	전경화되는 작품 요소
원제 (대만 화어)	臺灣漫遊錄 (타이완 유람기)	-	여행기·음식 서사
영어판	Taiwan Travelogue (타이완 여행기)	축자적 (littéral)	여행기·음식 서사
일본어판	台湾漫遊鉄道のふたり (타이완 유람철도의 두 사람) Chizuko & Chizuru's Taiwan Travelogue (치즈코와 치즈루의 타이완 여행기)	변형된 (transformé)	여성 인물 간 관계
한국어판	1938 타이완 여행기	수정된 (modifié)	식민지 역사·권력 관계

4.2 다국어 번역본 앞표지 분석

앞표지 분석에서는 각 판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인물의 유무와 배치, 공간 및 핵심 사물의 재현, 색채와 구도, 그리고 제목의 배치와 서체, 저자명·장르 표지 등 문자 정보의 위계를 살펴본다. 위와 같은 요소들이 앞서 설정한 여행기·음식 서사, 식민지 역사·권력 관계, 여성 인물 간 관계의 세 층위 가운데 무엇을 전경화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제목 분석의 결과와 연계한다. 이를 통해 제목의 언어적 전경화와 앞표지의 시각적 전경화가 상호작용하여 각 판본이 어떠한 작품 이미지와 독서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분석한다.

8) 일본어판은 주 제목에서 원제의 ‘漫遊’를 유지하되 ‘錄’을 삭제하고 ‘鉄道のふたり’를 더하여 제목 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부제 ‘Chizuko & Chizuru's Taiwan Travelogue’에서 원제의 여행기 의미를 부분적으로 복원하므로 주 제목과 부제를 함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자 작성.

주네트는 앞표지에 실릴 수 있는 요소를 저자명, 저자의 직함, 작품 제목, 장르 표지, 번역자·서문 필자의 이름, 헌사, 제사, 저자의 초상, 특정 삽화, 총서명과 상징, 출판사명과 상징, 발행연도, 정가 등으로 열거하면서도, 이 가운데 오늘날 사실상 의무적인 것은 저자명과 제목, 출판사 상징뿐이라고 지적한다(1987/1997, p. 24). 나머지 요소의 채택 여부는 출판사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며, 판본 간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편집상의 결정으로 읽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네트는 이어 국소적인 언어적·수치적·도상적 정보가 표지의 스타일과 디자인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요소들로 보완된다고 덧붙인다(1987/1997, p. 24).

본 연구의 분석 항목은 이 두 층위를 따른다. 문자 정보는 열거되는 국소적 정보에, 색채와 구도는 표지 전체의 스타일과 디자인에 대응하며, 인물·공간·사물은 주네트가 ‘특정 삽화’로 묶어 둔 항목을 표지 이미지의 지시 대상에 따라 세분한 것이다. 주네트 자신이 이 목록을 개략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한 만큼,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네 판본 간 비교가 가능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를 선별하였다. 표지 이미지의 배치 역시 작품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네트는 플레야드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실린 프루스트 사진의 배열을 예로 들며, 이러한 결텍스트 배치가 독자에게 작품을 자전적인 것으로 읽게 하는 추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1987/1997, pp. 30-31).

각 판본의 앞표지는 <표 4>와 같다. 다만 띠지와 수상 표시는 판본 간 비교의 안정적 단위가 되기 어려우므로 앞표지 디자인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대만 화어 원작 『臺灣漫遊錄』 앞표지를 살펴보면, 넓은 여백을 남긴 바탕 위에 창틀 형태의 액자가 배치되고 그 안에 철도가 지나가는 산간 풍경이 담채로 그려져 있다. 인물은 등장하지 않으며, 액자 아래로는 식물의 선묘가 이어진다. 가로쓰기 한자 제목이 상단에 놓이고 저자명도 하단에 가로로 병기되며, 그 밖의 문자 정보는 최소화되어 있다. 제목은 명조 계열의 정연한 서체로 조판되어 있어 기록물의 인상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구성은 제목의 ‘漫遊錄’이 지시하는 여행과 기록이라는 장르적 성격을 시각적으로 반복하며, 특정 인물이나 관계, 시대적 사건을 전면화하지 않는다. 즉 원작

의 앞표지는 작품의 세 층위 가운데 어느 하나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발견하도록 열어 두는 방식을 취한다.

표 4

4개 판본의 앞표지 이미지 비교⁹⁾

 <대만 화어판>	 <영어판>
 <일본어판>	 <한국어판>

특히 주목할 점은 저자명 표기이다. 원작 앞표지 하단에는 실제 작가인 양창쓰의 이름이 함께 제시되고, 두 이름 뒤에 ‘著’가 붙어 있어 표지상으로는 두 인물이 모두 저자로 제시된다. 그러나 작품 내부의 서문과 본문에서

9)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春山出版(2020, 표지 디자인·삽화 江易珊), Graywolf Press(2024), 마티스블루(2025), 中央公論新社(2023) 앞표지.

는 아오야마를 일본어 원저의 저자, 양왕쯔를 이를 대만 화어로 옮긴 번역자로 설정한다. 따라서 앞표지는 작품 내부에서 구분되는 저자와 번역자의 역할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두 인물을 형식상 공동 저자처럼 제시함으로써 저자성의 허구를 한층 복합적으로 구성한다. 주네트(1987/1997)는 저자명이 기재되는 정식 위치를 표제지와 앞표지로 한정하면서, 표제지의 이름이 법적 등재에 가깝다면 앞표지의 이름은 출판사가 저자를 독자에게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pp. 38-39, p. 46). 또한 그는 실제 작가가 작품을 상상적 저자에게 귀속시키고 그 저자에게 속성을 부여하는 실천을 별도의 범주로 다룬 바 있다(p. 47). 이 두 논의를 결합하면, 원작의 앞표지는 작품의 내용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자성 자체를 허구적으로 구성하는 자리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앞표지의 이러한 표기는 같은 책의 다른 결텍스트와 대비된다. 판권면에는 양왕쯔가 단독 저자로 기재되어 있다(楊雙子, 2020). 앞서 살펴본 주네트의 구분을 따르면, 저자성의 허구는 앞표지라는 ‘제시’의 자리에 한정되며 등재의 자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원작의 결텍스트는 저자성을 두고 이미 내부적으로 분화되어 있다.¹⁰⁾

세 번역본은 모두 앞표지에서 양왕쯔를 단독 저자로, 각 언어의 번역자를 별도로 명시한다. 이는 원작 내부에서 등재의 층위에 머물렀던 표기를 앞표지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작이 앞표지를 통해 구성한 저자성의 허구는 이 지점에서 해소되며, 세 번역본은 공통적으로 앞표지에서 작품을 대만 작가의 창작 소설로 제시하는 데서 출발한다.

최희경(2011)은 번역서의 표지가 원서와 다르게 구성되는 현상을 특정 사회의 문화와 신념, 가치를 공유하는 독자를 위한 현지화(localization)의 일환으로 설명하였다(p. 443). 뒤에서는 앞서 살펴본 원작의 구성을 기준으로 각 번역본이 무엇을 더하거나 덜어 냈는지를 살펴본다.

영어판¹¹⁾ 『Taiwan Travelogue』 앞표지에도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일

10) 주네트는 앞표지의 저자명을 주로 명성 및 판촉의 관점에서 논하며, 앞표지가 저자성을 허구적으로 구성한다고 직접 서술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앞표지의 저자명을 ‘제시’ 행위로 규정한 논의(p. 46)와 상상적 저자에 관한 논의(p. 47, pp. 52-53)를 결합하여 이와 같이 해석하였다.

본어판과 한국어판이 모두 여성 인물을 앞표지에 배치한 것과 달리, 영어판은 창문 형태의 이중 프레임과 그 안에 놓인 그릇 이미지를 중심에 두어 인물보다 공간과 사물을 전면화한다. 인물의 부재와 프레임 구조는 앞서 살펴본 원작의 구성과 공통되며, 이는 원작의 의미 요소를 가장 적게 변형한 제목 번역과 일관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프레임 안에 배치된 그릇은 작품의 특정 층위를 지시한다. 원작의 본문은 총 열두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제목이 모두 음식명이어서, 음식은 이 작품에서 소재에 그치지 않고 편제를 이루는 축으로 기능한다. 영어판 앞표지가 인물 대신 그릇을 화면 중앙에 배치한 것은 이러한 편제 원리를 시각적으로 압축한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세 층위 가운데 여행기·음식 서사를 앞세우는 구성이다. 다만 원작이 담채와 여백을 활용한 것과 달리 영어판은 채도가 높은 붉은색을 전면에 사용하여 보다 강한 시각적 인상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자 정보의 측면에서는 제목과 저자명, 번역자명이 상단과 하단에 명확히 구분되어 배치되고 ‘A Novel’이라는 장르 표지가 병기되어 있어, 작품이 실제 여행 기록이 아니라 소설로 읽히도록 유도한다. 영문 제목은 앞표지 최상단에 대문자로 배치되어 중앙의 이미지와 분리되며, 문자 정보의 가독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정돈된 제목 배치는 복합적인 프레임 구조와 대비되어 제목이 간결한 장르 표지처럼 기능한다. 한편 이러한 인물의 부재는 독자가 특정 인물과 동일시하기보다 작품을 여행기라는 장르적 틀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영어판의 앞표지는 제목과 함께 작품을 문학적 여행기로 포지셔닝하며, 작품의 복합적 서사 층위 가운데 여행·음식 서사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저자명은 YÁNG SHUĀNG-Zǐ로 표기되어 있다. 영어판이 성조 부호를 포함한 한어병음을 채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본 연구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표기는 저자명의 중국어 성조 정보를 영문 표기에서도 가시화한다.

-
- 11) 영어판은 Graywolf Press 초판(2024)과 이후의 페이퍼백 에디션, 2026년 영국판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초판 앞표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현재 유통되는 판본의 앞표지에는 전미도서상 배지와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 문구가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어판 『台湾漫遊鐵道のふたり』의 앞표지에는 두 여성이 직접 등장한다. 두 인물은 서로 마주 보는 시선 처리를 통해 대등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두 사람의 관계와 감정을 전면에서 보여주는 구도이다. 표지는 아이보리와 베이지 계열의 따뜻한 색조를 사용하며, 두 여성의 뒤로는 식민지 시대 양식의 기차역 건물이 배치되고, 두 인물 사이 하단에는 증기기관차가 놓여 있다. 주 제목에서 새롭게 부각된 ‘철도’가 이미지에서 다시 반복되는 구성이며, 역사적 배경을 완전히 지우지 않으면서도 인물 간의 관계를 전경화한다. 인물 뒤에 놓인 기차역은 단순한 시대적 배경이라기보다 두 사람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행 서사의 공간적 기반이다. 특히 두 인물 사이 하단에 증기기관차를 배치함으로써 주 제목의 ‘鐵道’가 문자와 이미지에서 반복된다. 그러나 기차역과 기관차가 배경 및 하단에 놓이는 반면 두 여성은 화면 중심을 차지하므로, 철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이동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인물 관계가 상대적으로 전경화된다.

이러한 관계 중심의 구성은 제목에서도 이어진다. 주 제목 아래에는 로마자로 ‘Chizuko & Chizuru's Taiwan Travelogue’가 작게 병기되어 있는데, 이는 원제의 여행기적 의미를 영어로 옮긴 『Taiwan Travelogue』를 부제에 포함하면서 그 앞에 두 인물의 이름을 소유격으로 덧붙인 형태이다. 즉 일본어판은 주 제목에서 원제의 구조를 재편하되, 부제에서 원제의 요소를 복원하면서 그것을 두 인물의 것으로 재귀속시킨다. 주 제목은 앞표지 상단을 따라 큰 검은색 글자로 곡선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붉은색의 작은 로마자 부제가 병기되어 주 제목과 부제 사이에 뚜렷한 시각적 위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앞표지 구성은 제목의 ‘ふたり’(두 사람)와 호응하여 작품을 여성 인물 간 관계를 중심으로 읽도록 유도한다.

한국어판 『1938 타이완 여행기』의 앞표지는 과일을 진열한 상점과 꽃·식물, 기와지붕과 벽면 등 대만의 일상적 생활 공간을 담채 톤의 삽화로 제시한다. 왕순웨이(2026)에 따르면 한국어판은 일본적 이미지를 강조하기보다 대만의 과일·꽃·삼합원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시각적 인상을 구성하였다. 이는 일본 식민지 관련 기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한국 독자의 수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판 앞표지는 식민지 시대를 직접적인 시각적 기호로 강조하기보다 대만의 일상성과 지역

성을 전면에 놓는 방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식민지 시대라는 역사적 층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제목의 ‘1938’이며, 앞표지의 인물 구도는 이러한 역사적 조건을 보다 간접적으로 환기한다. 화면 우측 전경에는 양장 차림의 여성이 크게 배치되고, 좌측 중경의 상점 안쪽에는 장삼 차림의 여성이 작게 배치된다. 전경의 인물은 중경의 인물이 있는 쪽을 향해 서 있다. 양장과 장삼의 대비 역시 두 인물의 서로 다른 문화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구분한다. 작품에서 아오야마 치즈코는 식민 지배국인 일본 출신의 여성이고, 왕첸허는 식민지 대만의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어 두 인물은 동일한 역사적 조건에 놓여 있지 않다. 왕(2025, p. 7)은 두 인물의 관계에서 식민지적 정체성과 사회적 차이가 친밀성과 연대에 개입하며, 두 여성의 관계가 이러한 권력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으로 제시된다고 분석한다. 작품의 관계 서사는 두 여성의 개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이들의 만남은 일본의 대만 식민 지배라는 비대칭적인 사회적 조건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국어판 앞표지에서 나타나는 두 인물의 크기와 배치, 공간적 분리를 두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개인적 위계로 단정하기보다, 두 인물을 둘러싼 식민지 사회의 비대칭적 조건을 시각적으로 환기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화면 상단의 제목은 색면 안에 굵은 글자로 배치되어 이미지와 명확히 구획된다. 이 가운데 ‘1938’은 ‘19’와 ‘38’을 두 줄로 나누어 겹쳐 놓아 나머지 제목 글자와 다른 조판 방식을 취한다. 연도는 나머지 제목 글자보다 작지만 독립된 형태와 배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식별되며, 역사성은 어휘 층위에서 도입되되 시각적 위계에서까지 단독으로 전면화되지는 않는다. 저자명·번역자명과 ‘장편소설’이라는 장르 표지는 작품을 실제 여행 기록이 아니라 소설로 인식되도록 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네 판본의 앞표지는 인물의 유무와 배치, 공간과 사물, 색채, 문자 정보의 위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만 화어 원작은 인물을 배제하고 액자 구조 안의 풍경을 제시하여 특정 층위를 우선하지 않으며, 영어판은 인물보다 공간과 사물을 전면화해 여행·음식 서사를 강조한다. 일본어판은 두 여성을 대등하게 마주 보는 구도로 배치해 인물 간 관계를 전면화하고, 한국어판은 두 인물을 크기·공간·복식에서 비대칭적

으로 배치함으로써 이들을 둘러싼 식민지 사회의 비대칭적 조건을 환기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판본의 결텍스트가 작품의 서로 다른 서사적·역사적 층위를 상대적으로 부각하는 양상으로 읽을 수 있다. 한국어판은 제목의 연도와 인물 배치를 통해 작품의 식민지 역사적 배경을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제시하고, 일본어판은 기차역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남기면서도 두 인물의 관계를 우선하며, 영어판은 여행기라는 장르적 성격을 앞세운다. 다만 본 연구는 출판사의 의도나 실제 독자 수용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차이를 각 언어권의 역사적 위치가 직접 결정된 결과로 단정하지 않고 결텍스트가 제안하는 잠재적 해석 방향의 차원에서 논의한다. 즉 제목과 앞표지가 결합하여 각 판본은 서로 다른 독서 계약을 제안한다.

이처럼 각 판본에서 제목과 이미지는 동일한 요소를 반복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보완하면서 특정 서사적 층위로 해석 방향을 유도한다. 이는 바르트의 앵커리지와 릴레이 개념을 통해, 제목이 이미지의 해석 방향을 한정하거나 제목과 이미지가 상호보완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분석 결과, 네 판본은 동일한 작품을 바탕으로 제목과 앞표지를 통해 각기 다른 서사적 층위를 전경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만 화어 원작은 인물을 배제하고 액자 구조 안의 풍경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층위를 우선하지 않는 구성을 취한다. 영어판 『Taiwan Travelogue』는 원제의 의미 요소를 가장 적게 변형한 제목 번역을 선택하고 앞표지에서도 인물보다 공간과 사물을 전경화함으로써, 작품을 문학적 여행기로 제시하는 독서 계약을 구성한다. 일본어판 『台湾漫遊鐵道のふたり』는 주 제목을 ‘철도’와 ‘두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제에서 여행기적 의미를 부분적으로 복원하며, 앞표지에서는 두 여성을 대등하게 마주 보게 배치함으로써 여성 인물 간 관계를 전경화하는 독서 계약을 형성한다. 한국어판 『1938 타이완 여행기』는 제목

에 연도를 포함시키는 한편 앞표지에서 두 인물을 크기·공간·복식에 차이를 두어 배치함으로써, 일본인 아오야마와 식민지 대만인 왕첸허가 서로 다른 역사적·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음을 환기하는 독서 방향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언어권이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맺는 관계와 관련 지어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한국어판 제목에 포함된 ‘1938’은 작품의 배경이 일본 식민 지배하의 대만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시점을 환기하며, 앞표지의 비대칭적인 인물 배치와 결합하여 두 인물이 놓인 서로 다른 식민지적 위치를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한다. 한편, 일본어판은 식민지 시대의 기차역을 배경으로 유지하면서도 제목과 인물 구도에서는 두 여성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앞세운다. 영어판은 이와 달리 작품을 여행기라는 장르적 틀로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결텍스트의 차이를 각 언어권의 역사 경험이나 출판사의 의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하기에는 실증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제 수용의 결과가 아니라 각 판본의 결텍스트가 독자에게 제안하는 잠재적인 독서 방향의 차이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이는 베첼러(2018)의 논의와 부합하는 한편, 본 사례에서는 한 가지 추가적인 양상이 확인된다. 원작의 결텍스트가 서사를 구성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이 사례에서, 번역 결텍스트의 ‘새로운 구성’은 원작 결텍스트를 그대로 계승하기보다 일부 요소를 해체하고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해체는 번역 단계에서 처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원작의 앞표지는 작중 인물을 실제 작가와 나란히 저자로 제시하지만, 같은 책의 판권면은 양창쓰를 단독 저자로 기재한다. 저자성의 허구는 앞표지라는 ‘제시’의 자리에 한정되며 등재의 자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세 번역본의 저자명 표기는 이 분화 가운데 등재의 층위를 앞표지로 확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해체가 결텍스트 전반에 걸친 것도 아니다. 한국어판은 앞표지에서 양창쓰를 단독 저자로 제시하면서도, 일러두기에서는 이 책이 양창쓰가 번역한 대만판을 옮긴 것이라고 밝히고 본문의 각주 역시 세 층위로 구분해 둔다. 다시 말해 원작이 결텍스트를 서사 장치로 활용한 경우, 그 장치는 번역 과정에서 임의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앞표지에서 물러나고 본문에 가까운 자리에서 유지되는 방식으로 재배치된다.

본 연구는 제목과 앞표지를 개별 요소가 아닌 하나의 번역 결텍스트로 통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분석이 네 언어권에 한정되어 있으며, 독자 수용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작품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언어권으로 출판되고 있는 만큼, 수용 범위의 확대와 독자 반응을 연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쇄 시점에 따라 교체되는 띠지와 수상 표시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들 요소는 작품의 국제적 수용이 결텍스트에 반영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별도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가공의 서문과 여러 편의 후기 등 허구의 결텍스트를 본문 구성에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어판은 여기에 일러두기와 세 층위로 구분된 각주 체계를 더하고 있어, 이들 요소가 각 언어권 번역본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양창쑤. (2025). 1938 타이완 여행기 (김이삭, 번역). 마티스블루. (원본 출판 2020년)
- 楊双子. (2020). 臺灣漫遊錄 [Taiwan travelogue]. 春山出版.
- 楊双子. (2023). 台湾漫遊鉄道のふたり [Taiwan travelogue: The two on the railway] (三浦裕子, 번역). 中央公論新社. (Original work published 2020)
- Yang, S. (2024). *Taiwan travelogue* (L. King, Trans.). Graywolf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20)

<2차 자료>

- 가시와라 토키코. (2025. 12. 26.). 대만의 맛이 느껴지는 ‘역사백합소설’ 창시자. 일다. <https://www.ildaro.com/10351>
- 김민서, 김순영. (2019). 시대별로 살펴본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 원본 결텍스트와 번역본 결텍스트의 비교. 통번역학연구, 23(2), 23-48.

- 마승혜, 김순영. (2022). 번역서 표지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 및 평가 —□
『82년생 김지영』 번역서의 앞표지와 주제 간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번역학연구, 23(3), 183-209.
- 박은영. (2026. 1. 27.). [양창쓰X김이삭] 『1938 타이완 여행기』 대담. 채널예스. <https://ch.yes24.com/article/details/81894>
- 이강선. (2019). 27개의 『엄마를 부탁해』 번역본 표지에 나타난 다중 체계.
번역학연구, 20(2), 57-79.
- 이지민, 한륜혜. (2022). 문학 번역서 결텍스트 재정의와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주변텍스트 통시적 사례 연구. T&I REVIEW, 12(1), 193-210.
- 이지영. (2016). 문학번역의 결텍스트 리프레이밍: 소설 『허삼관매혈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5), 201-232.
- 지영래, 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위상: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247-276.
- 최미경. (2016). 번역된 소설 제목의 분석: 등가와 기능. 번역학연구, 17(3), 165-192.
- 최의식. (2011). 파라텍스트 분석에 의한 번역비평 시론. 프랑스학연구, 57, 195-234.
- 최희경. (2011). 번역서 표지의 변이 양상에 관한 기호학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5(1), 441-464.
- 한이재. (2026. 5. 20.). 양창쓰 ‘1938 타이완 여행기’ 부커상 인터내셔널 수상.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20_0003637416
- 王舜薇. (2026. 5. 18.). 她們譯出了《臺灣漫遊錄》：英、日、韓三位譯者，如何將青山千鶴子帶向世界 [They translated Taiwan Travelogue: How three translators brought Aoyama Chizuko to the world]. 報導者. <https://www.twreporter.org/a/taiwan-travelogue-a-novel-english-japanese-korean-translators>
- 中央通訊社. (2026. 5. 23.). 「臺灣漫遊錄」 奪獎掀熱潮 售出24國版權、6款譯本封面一次看 [Taiwan travelogue's award win sparks a wave of interest: Rights sold to 24 countries, six translated editions' covers at a glance]. 中央通訊社. <https://www.cna.com.tw/news/acul/202605235003.aspx>

- Barthes, R. (1977). Rhetoric of the image. In S. Heath (Ed. & Trans.), *Image-music-text* (pp. 32-51). Fontana. (Original work published 1964)
- Batchelor, K. (2018). *Translation and paratexts*. Routledge.
- Conway, S. (n.d.). Lin King: On translating Taiwan Travelogue and Taiwanese identity. *Timid Magazine*. <https://www.timidmag.com/features/lin-king>
- Genette, G.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J. E. Lewin,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7)
- Risterucci-Roudnicky, D. (2008). *Introduction à l'analyse des uvres traduites* [Introduction to the analysis of translated works]. Armand Colin.
- Wang, C. S. (2025). Bastardizing memory through shōjo: Cultural and historical translation in Yang Shuang-zi's Taiwan Travelogue: A novel 《台灣漫遊錄》. *Taiwan Lit and the Global Sinosphere*, 6(1).
<https://doi.org/10.61774/VDPN1487>

A comparative study of paratexts in multilingual translations of Taiwan Travelogue: Focusing on titles and front covers

Eun-Young Hong

Department of Liberal Arts, Catholic Kkottongna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titles and front covers of the original Taiwanese Mandarin edition of Taiwan Travelogue by Yáng Shuāng-zǐ with those of its Korean, English, and Japanese translations. Drawing on Batchelor's account of translation paratexts and Risterucci-Roudnický's framework for title analysis, it examines title shifts, patterns of semantic foregrounding, and the visual organization of figures, space, salient objects, color, and textual hierarchy. The original edition constructs a form of fictional authorship by placing a fictional Japanese author alongside the actual author on the cover, while its colophon names Yang alone. All three translations extend this colophon attribution to the cover. Beyond this shared departure, the three translated editions foreground different narrative layers. The English edition preserves the semantic elements of the source title with the least modification and centers a bowl within a framed window, emphasizing travel and food. The Japanese edition restructures the main title around "railway" and "the two," reintroduces the travelogue meaning in the subtitle, and foregrounds the two women's relationship. The Korean edition adds 1938 and separates the figures through scale, space, and dress, foregrounding the work's colonial historical context and the figures' different social positions. Each edition thus proposes a distinct "reading contract," with differences that may be read in relation to publishing and historical contexts.

Keywords: Paratext; translated title; front cover; Taiwan Travelogue; reading contract

키워드: 결텍스트, 번역 제목, 앞표지, 『1938 타이완 여행기』, 독서 계약

홍은영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hong_ey@naver.com

논문 투고일: 2026년 8월 13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15일